

여행가이드로 경영 비자 취득 가능여부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1) 経営管理ビザの在留資格への該当性

(1) 경영 비자의 재류 자격에 해당 성

일본여행의 투어 가이드를 자영업으로 하고있는 외국인이 일본 경영의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싶다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

이럴경우 심사의 포인트는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① 거주지가 일본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및

② 취업 비자 (기술 · 인문 지식 · 국제 업무) 대신

경영 비자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① 居住場所が日本である必要があるかどうかについて

① 거주지가 일본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주로 다음의 요소를 종합하여 심사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일본국내여행만을 전문으로 하고있는 것이라면,일반적으로 일본에있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일본여행 대만여행등 여러지역의 여행을 담당하고 있을경우 꼭 일본에 거주지가 필요한 지 여부에 관한 합당한 이유가 부족할 수 도 있습니다.

저희 고객님의 경우에는 가족의 현재거주지와 여행사와의 상담이나 안건을 일본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의 소명자료로 제출하셨습니다

일본국내여행(외국인상대)이 차지하는 업무량의 비율

② 就労ビザではなく 経営管理ビザである該当性

② 취업 비자가 아닌 경영비자의 해당성

수주 업체가되는 여행사와의 계약 형식이 업무 위탁 계약 (고용 계약이 아닌)이었다해도,

일본의 재류 자격으로는 취업 비자의 대상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 비자라면 학력 요건이 필요하지만, 학력 요건 필요없는 경영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경영」라고 말할만큼의 운영실태가 필요합니다.

- 설립할 회사명의혹인 개인의명으로 허가 · 자격을 가지고 있음
- 업무와 관련된 장비등을 자체 구입 · 보관하고있는 것
- 여행상품 가격에 대한 할인,가격인상 등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 기존, 향후를 포함 여러 고객과 거래가있는 것

- 자신의 사무실과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음
- 자신의 명의로 여행업체 단체의 가입여부
- 자사의 직원을 고용여부 혹은 채용계획여부
- 여행손해 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음
- 업무 수행 절차, 방법 등의 결정을 자체 판단 할 재량이 있음
- 근무 시간 · 장소의 지정을 하지 않는 것
- 여비 교통비를 수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 부담임
- 보수의 최저 보장없이 업무 완료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
- 스스로 청구서 등의 작성하여 관계 업체에 청구하고 있을 것 (상대방의 계산에 의하지 않는 것)
- 매출이 경비 분을 포함하여 일괄 적으로 적용되는 것 (실비 정산이 아님)

여행 가이드 업무의 소비세 유의사항과 재류자격 갱신

(2) 여행 가이드 업무 소비세 유의 사항 및 재류 자격의 갱신 신청시주의 사항

여행 가이드 업을 할 경우 법인 매출로 해외 여행사에서 여행 대금 총액이 입금되고, 매출 원가로 버스 회사, 숙박업체등의 지불이 계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어디 까지나 사무 대행으로 업무 대행 수수료와

실비 (버스 회사, 숙박업체에 지불)을 구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수출면세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 제공)에 해당하게되어 소비세의 납세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문의주십시오

실제 결산서상으로도 업무 대행 수수료만을 매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입국 관리국이 재류 자격 갱신 여부 및 갱신기간 (1 년 또는 3 년 등)을 판단 할 때 총 매출액이 큰 것이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경우 소비세의 세금을 절세를 할 것인지  
경영비자의 갱신시 유리하게 매출액을 늘릴것 인지  
어느쪽을 선택하는지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경우 저희 세무사법인에서는 입국관리국 제출용의 총액표시의 결산보고서  
세무서 제출용의 순액 결산보고서를 양쪽을 작성 가능합니다.  
양쪽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 있을 경우 법령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행가이드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비자를 취득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의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